



포덕 158년 천일기념

천일기념은 천도교 교조(敎祖)이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대신사(大神師)께서 1860년(布德元年) 4월 5일 한울님으로부터 만고 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아 천도교(동학)를 창도한 날을 기념하는 천도교(天道敎)의 최대 경축일입니다.



식 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포덕문)
1. 천덕송 합창(기념송)
1. 기념사
1. 축사
1.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1. 천덕송 합창(천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

대도중흥 비전21 실천결의 11:50~12:00

● 천일기념 축하공연

1. 식전공연 - 천도교연합합창단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 일시 : 4월 5일 기념식전(10:30~11:00)
2. 식후공연 - 역사음악연구소/ 부산예술대학교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 일시 : 4월 5일 기념식후(12:00~12:40)

● 천일기념 맞이 사인여천 나눔축제

- 떡과 기념품을 나누며 다함께 축하하는 나눔행사



기념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어 다시 개혁의 첫날을 여신 포덕 158년 천일기념일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새로워지는 춘삼월 호시절에 후천 새 세상을 맞이하시는 동덕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 세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58년 전 오늘이 있기까지 대신사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각자위심이 가득 차서 한 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구하고자 천하를 두루 살피고 팔도강산을 다 밟으며 구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시의 차례가 어김이 없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쇠운이 지극한 선천의 끝에 후천의 성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구미용담 성지로 돌아와 불출산외 중한 맹세 후 한울님을 만나 경신년(1860) 사월 초오일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이날은 한울님이 대신사를 만나서 성공하신 날이

요, 세상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만물과 더불어 세상을 살리는 하원갑 후천 문명의 첫날이었습니다.

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고, 그 도통이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로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는 여정은 편안한 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으며, 빛나는 날보다는 고난의 어둠이 짙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울님의 감응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천도교의 선열들은 고생을 희락으로 여기며, 도성입덕과 포덕광제의 길로 매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천도교 창도 기념일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다시금 개혁시 국초일의 한울님 뜻과 대신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열들의 거룩한 신앙 일생을 본받아 실천하기로 맹세하면서 지금의 우리 모두가 할 일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한울님께서서는 대신사에게 무극대도를 내리시면서, 한편으로 영부를 주시어 세상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라 하시고, 한편으로 주문을 주시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울님을 위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사람 모두가 동귀일체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제인질병(濟人疾病)과 교인위아(敎人爲我)

와 동귀일체(同歸一體)야말로 천일기념일을 맞으며 염념불망, 재사심정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눈앞에는 ‘대도중흥 · 중일변 · 민족통일’이라는 엄중한 교단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쇠운을 성운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각오의 결정(結晶)이요, 한울님의 감응을 간절히 바라는 기원이며, 지금 이 시대에 제인질병하고 교인위아하며 동귀일체하는 구체적 실천의 방도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격동기이며, 세계적으로도 지난 한 세기의 국제정치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며 요동치는 때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정체성마저도 새롭게 정립하기를 요구하는 문명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 앞에 다가온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은 남과 북의 대치와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와 상생의 새 물결이 일도록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인질병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이자 지혜의 요람이라 믿습니다.

당면한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는 지난해에 “대도중흥 비전 21”을 선포하였고, 오늘은 그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마련하여 이상을 현실화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발판을 놓습니다. 대도중흥의 비전은

안으로 포덕역량을 구축하고, 밖으로 포덕환경을 확충하며, 포덕광제를 실천하는 과제들을 집약한 것입니다. 이는 주문의 핵심인 모실 시(侍)의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각지불이(各知不移)의 구조와 21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시대에 교인위아(敎人爲我)의 구체적인 교안(敎案)으로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요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대미문의 역사적 고비를 넘어 가고 있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대상은 일찍이 의암성사께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원칙으로 3.1독립운동을 영도하신 역사가 다시금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는 포덕문에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리오”라 하시고, 또 권학가에서는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쇠 아닐런가.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 “가련한 세상사람 각

자위심 하단 말가. 경천순천 하여스라.” 하셨습니다. 동귀일체는 오심즉여 심이요, 나와 한울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수도연성이 그 출발점이라 할 것이며, 각자위심을 버리고 경천순천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니 규모일치가 그 성공의 요체라고 믿습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도중흥 비전 21”과 그 “실천 강령”을 우리 시대의 계명, 우리 시대의 임사실천 조목으로 삼고 동귀일체의 대행진을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 행진의 목표를 포덕2500운동으로 구체화하여 전국의 각 교구별로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포덕2500운동은 우리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표준이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세상 사람과 어떻게 조화하고 소통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계기이며, 한울님과 스승님, 그리고 선열들로부터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잣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북녘의 동덕 여러분!

지금의 남과 북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찍이 스승님께서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남북 천도교인들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대도중흥의 달성을 기약하는 것이 그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이며, 중일변을 도모하는 것이 민족통일의

지름길임을 잊지 아니하여, 한울님과 스승님께서 열어 놓으신 무극대도의 길에서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남과 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이 땅에 무극대도가 창도된 후,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화혁신운동, 3.1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온 동학 천도교의 보국안민 정신은 최근의 명예로운 혁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사람이 곧 한울인 인내천 이치의 구현이라 할 것입니다. 갈등과 적폐를 슬기롭게 치유하고 정의를 향해 매진해 온 우리 시대 평화의 행진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법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승화되어 세상사람 모두가 각수직분(各守職分)으로 도성입덕하고, 포덕천하와 광제창생의 다시개벽으로 신문명을 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와 빈부귀천과 동과 서 남과 북의 갈등이 모두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조화되어 가는 동귀일체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이 두루 감응하시기를 심고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포덕 158(2017)년 4월 5일

천도교 교령 이정희 심고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연(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연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은적암(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에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포덕문(布德文)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①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②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이화로 알더니,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卷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而順天理者也 故 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 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③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나시어 일월성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적어내어 천도의 뉘뉘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부쳤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

리오.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
矣 ④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사람이 각자위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
더라.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功取天下 立其堂 行其道
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 ⑤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
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
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 西道以教人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
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
亦長生 布德天下矣 ⑥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짐증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즘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病則 或有差不差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⑦

나도 또한 그 말씀에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서 마셔 본 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더니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르른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唇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⑧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德 甚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而 吾將慨歎 世則無奈 忘略記出 諭以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 ⑨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사람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나의 이 말을 들으면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르게 여기고 나와서는 모여서 수군거리며 도덕을 순종치 아니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진 사람도 이를 듣고 그것이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 못내 개탄하거니와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간략하나마 적어내어 가르쳐 보이니 공경히 이 글을 받아 삼가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지어다.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희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짜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짜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후렴

거룩하신 스승말씀에

사람이 곤한 울인 - 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 아 - 침

